

‘佛性’ 동아시아 불교서 어떻게 변용됐나

금강대 불문연, 6월 22~23일 국제불교학술대회

‘일체중생살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 ‘모든 중생이 모두 부처님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 구문은 동아시아 대승불교를 만나면서 ‘부처가 될 가능성’에서 ‘부처와 닮았는’과 같은 뜻으로 진화했다. 이는 동아시아 불교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불성론, 여래장 사상의 기본이 된다.

이 같은 불성론, 여래장 사상이 동아시아 불교에서 어떻게 수용됐는지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천학) 인문한국(HK)연구센터는 개교 10주년을 맞아 ‘동아시아에서 불성, 여래장 사상의 수용과 변용’을 주제로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서울 을지로 페르타타워에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중국 린민대학 불교와 종교학이론연구소와 일본 도요대학과 공동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무엇보다 한중일 삼국 불교의 원천인 불성론이 어떻게 변용됐는지를 삼론학, 지론종, 천대, 화엄, 선종 등의 각 분과를 통해 조명한다.

먼저 다케무라 마사오 일본 도요대학 총장은 첫날 기조발제를 통해 여래장사상의

다른 표현인 본각사상이 <대승기신론>에서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다케무라 총장은 동아시아 불교의 이론적 체계를 제공하고 있는 <대승기신론>이 본 각 사상을 설한 논서이고, 이는 붓다의 대비, 즉 타력의 가능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는 ‘중도가 곧 불성’이라고 본 삼론학을 조명한다.

中 린민대, 日 도요대 참가

삼론학 등 불성론 수용 살펴

10년 공동 연구... 교류 체결

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중국 길강의 <대승현론>과 백제 혜균의 <대승사론현의기>를 중심으로 삼론학파의 중도불성론이 고정된 불성론이 아닌 역동적인 불성론이었고, 이내 ‘남종선의 불성론’에 그대로 반영돼 특유의 선문답의 토대가 됐음을 밝힌다.

‘선종의 성립과 불성론의 변용’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는 일본 도요대학 이부키 야츠시 교수는 깨달음이 성립되기 위한 이



다케무라 마사오 총장



김성철 교수



이부키 야츠시 교수



정원향 교수

론적 근거였던 ‘불성’이 누구에게나 있는 본래 면목으로 자리할 수 있게 된 변화를 선종 내부의 사상적 변화에서 찾는다.

중국 인민대학 장원량 교수는 ‘불성론의 중국불교사에서의 전개’라는 제하의 발제를 통해 당대(唐代) 열반종 범보 스님(7C 초~8C초)과 화엄종 4조 징관 스님(738-839), 천태종 부흥종 담연 스님(711-782)의 불성설을 둘러싼 논쟁을 다룬다.

이밖에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원측 스님 전문 연구가인 일본 도요대 가츠카와 토모야키 박사가 ‘이불성과 행불성’ 주제 발제를 통해 중국 범상종의 불성관에 대해 조명하며, △대만 국립정치대학 쟁경 박사의 ‘정영사 혜원의 불성관 이해’ △금강대 최은영 박사의 ‘여래장 경론과 길강의 불성론’ △시정평 중국 린민대학 교수의 ‘축도생 스님의 불성사상의 형성과정 분석’ △석길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센터 교수의 ‘<대승기신론>주석서에 나타난 여래장 해석 변화’ 등 다양한 각도로 불성론의 변화를 분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강대와 린민대학, 도요대학은 10년 동안 ‘불교의 동아시아 변용’을 주제로 하는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국제 학술대회 역시 공동 연구의 첫 성과로 금강대와 이들 대학은 10년 동안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연구 성과물도 공동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석길암 교수는 “한중일 3개 대학의 공동 연구는 동일 한문문화권 불교학 연구의 국제간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가 세계불교학 연구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molp79@hyunbul.com

“다산, 스님들 전등契 형성에 영향”

박동춘 동아시아문화연구소장, 다산 탄신 250주기 세미나서

다산 정약용 탄신 250주년을 맞이해 한국한문학회(회장 김영)가 6월 9일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다산과 불교계의 관계를 조명하는 발표가 눈길을 끈다.

박동춘 동아시아문화연구소장(사진)은 “다산 정약용의 전등계 형성과 그 뜻의 의문 그리고 당시 불교계와 다산이 맺은 교우관계를 집중 조명했다.

이날 박 소장은 “전남 감진에서 긴 유배 생활을 보낸 다산 정약용이 당시 아함 해장, 초의 의문 스님과 교류를 나누며 불교계와 유학계의 소통에 크게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박 소장은 “다산과 아함의 만남은 아함의 소개로 초의에게 까지 이어지며 이어 차를 계기로 진행된 불교와 유교의 만남은 차 문화 중흥을 넘어 그 후손과 제자들에게 까지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박동춘 소장은 새로 발굴된 다산의 초당 시절 제자인 윤종영이 주최한 시회의 시를 묶은 <거연유사>를 토대로 다산이



박동춘 동아시아문화연구소장

해남에서 스님들의 전등계 형성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유불 교우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다산은 초의에게 승가에서는 계율을 규범에서의 범도를 강조한 규범의 중요성을 가르쳤으며 초의는 사제의 예를 닮았으며 다산 자체들과도 이어졌”고 말했다. 이밖에 박 소장은 1805년 봄 다산이 아함을 만난 이후 강진이 떠나기 전까지 초의를 비롯해 대문사 스님들과의 학연이 확대돼 전등계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3개 분과로 진행됐다. 1분과 다산연구의 정점과 전망에서 조성을 아주대 교수의 ‘다산과 천주교’ 이현창 고려대 교수의 ‘다산의 국가제도론’ 등이 발표됐다. 2분과 다산연구의 자료와 시각에서는 정민 한양대 교수의 ‘다산 일문을 통해 본 승려와의 교류와 강학’ 이영호 성균관대 교수의 ‘다산과 석천의 경전해석을 통해 본 실학파 경학의 일면’ 등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부처님 말씀과 마음은 둘이 아니기에...

동국대 종학연구소, ‘간화선과 불교교학’ 주제 국제학술대회

6월 23~24일 세미나, 25일부터 일주일간 마곡사 실참



2011년 열린 제2차 간화선 국제세미나 모습. 2012년에는 70여 학자들이 참여한 열띤 토론을 벌인다.

간화선과 불교학과의 관계를 집중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국대 종학연구소(소장 종호 스님)는 6월 23-24일 이틀간 동국대 중강당에서 제3차 간화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간화선과 불교교학’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내외의 30여 불교학자들이 참여해 선과 교의 관계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2010년 ‘간화선 세계를 비추다’와, 2011년 ‘간화선의 원리와 구조’에 이어 세 번째 마련되는 간화선 국제학술대회다.

첫날인 23일에는 국제선센터 선원장인 수불 스님(범어사 주지)이 ‘한국불교의 활로 간화선에 있다’를 주제로 기조강연 한다. 수불 스님은 한국불교 수행의 정맥(正脈)인 간화선이 도입돼 정착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간화선이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올바른 수행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역설한다.

이어 각 분과 별로 12개의 주제로 각각 간화선과 교학이 어떻게 상호 수용되고 용인되는지 다룬다.

특히 제니퍼 에이흐먼 미국 모레이비엔대 교수는 ‘1714년 2720 공간집에 대하여’란 발표를 통해 1700개의 공간(公案·화두)이 중국 명나라 후기 2720 공간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 밝힌다. 공간의 증가는 스승들의 수행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 방편의 시도라는 설명이다.

이밖에 프라마하 노파돌 사수타 태국 마하출라랑콘라자위탈라야대 교수는 상좌부 불교에서의 간화선 흔적에 대한 문헌적 증거와 현재 태국에서의 공간 수행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 프라마하 교수는 태국의 6명의 공간 수행자들의 수행상을 전한다.

또 웬디 아담 호주 시드니대 교수는 ‘보산(寶山)에서의 참회수행-화두의 전사(前史)’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참회의

식이 중국 초기 불교학파들의 기본수행법이었으나 선이 등장하며 이를 대체했다”고 주장한다.

국내 학계에서는 다양한 불교교학과 간화선의 접점이 발표된다. 먼저 동국대 교수 해수 스님이 ‘간화선과 화엄성’ 발표를 통해 방대한 화엄학 교의에서의 간화선 요소에 대해 설명한다.

또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는 ‘간화선과 유식학적 이해’ 발표를 통해 유식에서 보이는 간화선 원리와 근거를 밝힌다. 또 김성철 동국대 교수는 ‘간화선과 반야중관’, 동국대 교수 종호 스님은 ‘간화선과 천태의 구조적 연관성’ 등을 조명한다.

이밖에 도 순영택 중국 남경대 교수의 ‘송대 문자선, 간화선과 선교관계’, 김진 무 동국대 교수의 ‘간화선에 운용된 반야의 논리’, 로버트 지멜로 노트르담대 교수의 ‘불교에서 의식과 믿음’ 등 논문이 발표된다.

한편, 학술세미나 참가자들을 비롯한 70여 국내외 학자 및 스님들은 이번 학술대회에 이어 6월 25-27일 1일 공주 마곡사에서 간화선 실참에 들어간다. 7월 2-3일에는 적명 스님(봉암사), 무어 스님(축서사), 해국 스님(석종사)과 대담도 나눌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학술 · 문화재소식

한국명상치료학회, 치료 사례연구 발표

한국명상치료학회(회장 인경)는 6월 23일 오후 1시 서울 동국대 도서관에서 제12차 정기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명상치료와 질적 사례연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명상심리치료> 출간 기념해 저자 인경 스님이 ‘명

상(심리)치료와 질적 사례연구 방법론’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지홍원 동방대 교수가 ‘나의 명상치유 여정-자서전적 내러티브’, 류지숙 동방대 교수가 ‘호흡 명상이 신체화상장애 통증감소에 미치는 효과’ 등을 발표한다. 노덕현 기자

3개 불교학술단체 공동 워크숍 눈길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불교학연구회(회장 박경준)·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립)는 7월 6-7일 평창 월정사에서 ‘인지과학과 불교의 만남’을 주제로 여름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박문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뇌 과학과 불

교’, 최훈동 한빛 정신병원 원장이 ‘정신 의학과 불교’, 윤병수 영남대 심리학과 교수가 ‘인지심리학과 불교’를 발표한다. 워크숍 일정으로는 나를 깨우는 108배 및 참선, 산내 암자 순례, 전나무 숲길 걷기 명상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02)2260-3129 노덕현 기자

한국 근대종교의 탄생 심포지엄

한국종교문화연구소(소장 윤승용)와 종교문화비평학회(회장 장석만)는 6월 30일 오후 2시 서울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

에서 ‘한국 근대종교의 탄생’을 주제로 2012년도 상반기 정기 심포지엄을 연다. (02)886-2480 노덕현 기자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법 자세 교정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뼈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육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칭혈요법)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특강: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특별강사: KBS / MBC출연 / 대한(병)의원 진흥회장, 활법창시자 직강
▶대 상: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과 질환으로 고생하는자
▶특 전: 자세교정사 자격 부여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의: 02)393-5111 / 019-517-1730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무선 마이크 무료보시!

지난 25년간 金文華가 제작해온 최고성능의 ‘DX-707 스탠드 마이크’를 구입 해 주신 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7대의 ‘DX-707 스탠드 마이크’ 제작을 끝으로 더 이상 공급 해 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오며...

마지막 남은 7대의 ‘DX-707 스탠드 마이크’를 영원히 소장, 보관하실 스님 7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법당에 새로 앰프 시설을 원하시는 스님께서는 “고급 무선 마이크 + 헤드셋1세트”를 무료 보시하겠습니다. (₩ 270,000원 상당)

DX-707 마이크 7개는 법당에 앰프설치를 새로 할 사찰 일곱 곳에만 공급합니다.

마지막 남은 7대의 ‘DX-707 스탠드 마이크’를 영원히 소장, 보관하실 스님 7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법당에 새로 앰프 시설을 원하시는 스님께서는 “고급 무선 마이크 + 헤드셋1세트”를 무료 보시하겠습니다. (₩ 270,000원 상당)

DX-707 스탠드 마이크
1대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특징: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음질, 음질 보장
저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가격: 250,000원

□법당 고급 앰프시설 특별 설치 □
특별가격: 1,620,000원(선착순 7스님께)
구 성: 스테레오앰프 300와트 1대
CD 기기 1대
소형 믹서 5채널 1대
최고급 범용 전용 스피커 1세트
DX-707 스탠드 마이크 1대
V-620 헤드 마이크 1대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무선 핀 마이크+헤드셋 1세트 (보시)

무료 보시 무선마이크
고품질 무선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희: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